

니체 113주기... 은암미술관, 10~17일 '니체 쇼'

Nietzsche Show

학술세미나·음악감상·전시... 니체 예술 사상 재조명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는 현대 철학의 지평을 새롭게 구축한 인물로 예술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었다. 니체는 예술이 가진 근본적 가치에 주목했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모두 예술가가 된다는 것. 이는 예술의 장르가 무너지고 예술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오늘날의 현대미술의 토대가 됐다.

철학자 니체가 캠퍼스를 뛰쳐나와 미술관에서 작곡가이자 문화인으로서 대중과 만난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10~17일 니체 113주기를 맞아 학술세미나와 음악감상, 전시를 통해 니체의 예술 사상을 재조명하는 '니체 쇼'(Nietzsche Show)를 연다.

'니체 쇼'는 한국니체학회와 전남대 철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BK21 플러스 사업단, (사)동아시아미술교류협회가 주최하고,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모색하는 '카페 필로소피아'(Cafe Philosophia)가 주관한다.

이들 단체는 '실존주의' '생(生)철학' 등 딱딱한 철학적 논의에서 벗어나 니체를 대중들이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쇼'라는 단어에도 니체를 대중에게 다양하고 신명나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전시에는 몽크, 조셉 보이스 등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린 니체 초상화와 니체의 사상을 표현한 작품, 니체가 떠돌며 안식을 취했던 호수와 도시, 니체로 인해 명소가 된 건물 사진 등 60여점과 국내에 출판된 니체 관련 도서 30여종류 등이 전시된다.

전남대 성진기 명예교수가 직접 짠 니체의 생가, 무덤 등 흔적이 머문 공간들을 보여주는 '니체의 생애 스케치 슬라이드쇼'도 준비돼 있다. '니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제로 성 교수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니체 흉상, 니체 곱, 니체 가방, 니체 기념 와인 등 니체 관련 상품도 전시된다.

철학자 니체를 미술관에서 만나다

오는 15일에는 '니체 사상의 미학적 조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원광대 김정현 교수(한국니체학회 회장)의 '니체와 현대 미술의 탄생'(오후 1시~2시), 경북대 정낙림 교수의 '니체와 조셉 보이스 이후'(오후 2시~3시), 전남대 이선 교수의 '초현실주의와 니체'(오후 3시~4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몽크가 그린 니체의 초상

작곡가들도 잘 알려진 니체의 음악을 감상하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오는 13일 오후 5시에는 니체가 작곡한 'Mein platz von der Tuer'(문가의 내 자리) 등 11곡을 LP로 들을 수 있다. 전남대에 출간 중인 김현욱씨는 니체가 작곡한 곡의 리듬과 멜로디 속에 담긴 니체의 철학에 대해 해설할 예정이다.

평소 니체 철학에 심취한 김씨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창작곡 '위버멘쉬'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등 2곡을 짧은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씨와 첼리스트 박효은의 연주로 선보인다.

16일 오후 5시에는 니체의 철학을 드라마식으로 만든 음악 'Nietzsche-Melodramen'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성진기 교수는 "니체의 사상이 현대 미술과 음악에 미친 영향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학술세미나 (8월 15일)

1. "니체와 현대미술의 탄생" 김정현 교수(원광대)
2. "니체와 조셉 보이스 이후" 정낙림 교수(경북대)
3. "초현실주의와 니체" 이선 교수(전남대)

• 니체 음악감상

1. Mein Platz von der Tuer 외 (8월13일)
2. 창작곡 연주회 (8월15일)
3. Nietzsche-Melodramen(8월16일)

• 전시

1. 니체의 생애 스케치 슬라이드 쇼
2. 니체 초상화 등 관련 사진
3. 국내 출판 니체 관련 도서

한동일 니콜라이 디아디오우라 김다솔



페스티벌
오! 광주
정음성축제

9월11일~14일 광주문화회관·빛고을시민문화관

을 가을 광주에 '클래식 성찬'이 펼쳐진다

한중문화교류 공연·학술세미나

이탈리아 오페라 앙상블 공연

광주 출신인 세계적인 음악가 정음성을 기리는 '음악의 성찬'이 광주를 찾아 온다.

오는 9월 11~14일 광주문화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음성 축제' 공식 일정과 출연진이 확정됐다.

축제는 오는 10일 '2013광주정음성콩쿠르' 1차 예선을 시작으로 9월 14일까지 정음성축제 및 한중문화교류 공연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광주정음성콩쿠르'는 오는 10월과 17일 호남신학대 예음홀에서 1차예선을 실시하고 21일 2차 예선을 거쳐 31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본선 경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1등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9월 11일 '정음성축제' 개막 무대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

정음성 축제 본 무대 첫날인 9월 11일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니콜라이 디아디오우라(현 우크라이나 국립 오페라단 수석 지휘자)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오프닝 무대를 선사한다. 그와 함께 협연할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신예로,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됐다.

12일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피아니스트로 평가받는 한동일과 그의 음악친구들이 함께 하는 무대가 열린다. 일본 요미우리오케스트라 및 오사카필하모닉에서 활동 중인

일본 연주자 3명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중문화교류를 위한 상호교류공연도 열린다. 13~14일 양일간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창조시 공연단은 중국전통의 '상당팔음화', 산시민요인 '산시민요' 등 다채로운 중국 문화를 전할 예정이다. 아이리야, 루트머지 등 지역예술인들이 창조출연해 한·중전통문화의 맛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무대를 꾸민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극장에서 한·일 음악가들이 함께 하는 '정음성작품연주회'를 개최한다. 축제의 마지막은 오후 7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지는 이탈리아 '일 콘체르토 델레 오페라' 앙상블 공연이 장식된다. 문의 062-670-746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김승옥 문학상' 제정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1941) 문학상이 제정된다. KBS 순천방송국은 순천 출신 김승옥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재능있는 작가를 발굴하고자 '김승옥 문학상'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는 김승옥은 탁월한 감수성으로 단편소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옥 문학상은 본상과 미래작가상 두 분야로 나뉜다. 본상은 그해에 가장 우수한 소설 작품을 낸 작가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미래작가상 첫 공모는 주제와 소재 제한 없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



'삶을 바꾼 만남' '소금'도 읽어보세요

'광주 특운동' 한책선정위원회 10권 추가 선정

범시민독서운동 '광주가 읽고 톡톡하다(광주특)'를 전개하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최근 '한 책'으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선정해 데 이어, 동반도서 10권을 선정 발표했다.

한책선정위원회는 책의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동반도서 10권을 추가로 선정했다.

동반도서는 '삶을 바꾼 만남: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정민)', '다산, 조선의 새 길을 열다'(실학박물관), '내 인생에 웅기가 되어준 한마디'(정호승), '별을 보어드

립니다'(이청준), '소금'(박범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필립 체스터필드), '위로'(이철환), '꾸뻬씨의 행복 여행'(프랑수아 트로트),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강세형) 등 10권이다.

한책선정위원회 마재숙 위원장(전남대 도서관장, 의학과 교수)은 "한책으로 선정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동반도서를 함께 읽으면 다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